

정기연주회

VIOLIN

RANDALL GOOSBY

바이올린 랜들 구스비

CONDUCTOR

PETER OUNDJIAN

지휘 피터 운지안

KBS교향악단
제819회 정기연주회

2025.10.17.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KBS S.O. 819TH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조앤 타워 J. Tower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모음곡 *아시아 초연 Suite from Concerto for Orchestra *Asian Premiere	⌚ 12'
-------------------	--	-------

차이콥스키 P. I. Tchaikovsky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 33'
	I. Allegro moderato 적당히 빠르게 (19')	
	II. Canzonetta: Andante 작은 노래: 느리게 (7')	
	III. Allegro vivacissimo 매우 생기있고 빠르게 (7')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	--------------	-------

라흐마니노프 S. Rachmaninoff	교향곡 제3번 a단조, 작품 44 Symphony No.3 in a minor, Op.44	⌚ 39'
	I. Lento ; Allegro moderato 느리게 ; 적당히 빠르게 (13')	
	II. Adagio ma non troppo 느리게, 하지만 지나치지 않게 (12')	
	III. Allegro 빠르게 (14')	

⌚ 총 소요시간 : 약 120분 (인터미션 포함)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DUCTOR
PETER OUNDJIAN

지휘 피터 운지안

지휘계에서 역동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피터 운지안은 활기찬 협력 정신과 매력적인 음악성으로 유명하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도쿄 현악 사중주단의 제1바이올린 주자로 음악 인생을 시작한 운지안은 이후 50여 년 간 세계의 주요 콘서트홀에서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국제적인 지휘자로 활동해왔다.

운지안은 콜로라도 심포니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한 데 이어 현재 콜로라도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동시에 콜로라도 뮤직 페스티벌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청중의 사랑을 받는 작품과 현대 작곡가의 작품으로 청중을 즐겁게 하는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해 왔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한 14년 간 운지안은 혁신적 프로그램, 예술적 협업, 청중 확대, 국내외 투어 등을 통해 오케스트라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그라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고 주노 상을 수상한 본 윌리엄스의 관현악곡 녹음을 비롯해 뛰어난 앨범을 다수 남겼다. 운지안의 리더십 하에 토론토 심포니는 세계적 입지를 크게 다졌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운지안은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북미, 중국, 유럽 페스티벌 투어를 비롯해 다수의 국제 투어를 진행했으며, 브레겐츠 페스티벌과 드레스덴 페스티벌은 물론, 인스브루크, 베르가모, 류블랴나 등지의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운지안은 음악감독으로서의 마지막 무대로 2018년 BBC 프롬스에서 브리튼의 장대한 <전쟁 레퀴엠>을 지휘했다.

운지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디트로이트 교향악단의 수석객원지휘자이자 예술 고문으로 활동했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뉴욕 카라무어 국제 음악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을 역임했다. 1998~2002년에는 암스테르담 신포니에타의 음악감독을 맡기도 했다. 운지안은 지휘자로서 활동하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피츠버그 심포니, 애틀랜타 심포니,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등 미국을 대표하는 유수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지휘자로 활동했다. 운지안은 2025/26년 시즌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명예 지휘자로서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KBS교향악단과 아르메니아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방문하여 해외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운지안은 1981년부터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의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샌프란시스코 음악원과 토론토 왕립 음악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VIOLIN

RANDALL GOOSBY

바이올린 랜들 구스비

Randall Goosby records exclusively for Decca Classics.
랜들 구스비는 데카 클래식 전속 아티스트입니다.

©Jeremy Mitchell

“개인적으로 저에게 음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수단입니다.”

랜들 구스비의 말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완벽하게 요약한다.

2020년 24세의 나이로 데카 클래식과 독점 계약을 맺은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랜들 구스비는 예민하고도 강렬한 음악성,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용적이고 접근이 가능해지도록 만들려는 의지, 그리고 저평가된 작곡가의 음악을 발굴하는 노력으로 호평받고 있다. 구스비는 최근 줄리아드 예비학교(Preparatory Division)에 임명되어 2025년 가을부터 프리칼리지 바이올린 교수진에 합류한다.

구스비의 2025/26 시즌 주요 무대에는 애틀랜타 심포니/레너드 슬래트킨,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크리스티안 매셀라루, KBS교향악단/피터 운지안, 샌디에이고 심포니/카춘 왕, 멤피스 심포니/로버트 무디, 포틀랜드 심포니/에카르트 프로이와의 협연이 포함된다. 또한 2026년 봄에는 스피нк스 비르투오지(Sphinx Virtuosi)의 미국 투어에도 함께한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피츠버그 심포니, 뉴저지 심포니와 다시 무대에 오르며,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독주 및 르네상스 콰르텟(Renaissance Quartet), 그리고 앤서니 맥길, 조슈아 문과 함께 필라델피아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2024/25 시즌부터 구스비는 도르트문트 콘체르트하우스의 “융에 빌데(Junge Wilde)” 시리즈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8년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오디션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영 클래식 아티스트 재단과 런던 뮤직 마스터가 손을 잡고 주최한 대회에서 최초의 ‘로비 아티스트’로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뮤직 마스터의 홍보대사가 되어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멘토가 되면서 영감을 주었다.

이츠하크 펄먼과 캐서린 조를 사사한 후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 디플롬을 수여받았다. 펄먼 뮤직 프로그램 출신으로, 이전에는 필립 킨트를 사사한 바 있다. 구스비는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크레모나에서 제작된 1708년산 ‘ex-Strauss’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대여받아 연주하고 있다.

조앤 타워 J. Tower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모음곡 Suite from Concerto for Orchestra	*아시아 초연 *Asian premiere
작곡연도	2024년 (원작은 1991년 작곡)	
초연	2025년 1월 27일, 미국 뉴욕	
편성	플루트 3(2nd, 3rd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3(2nd는 Eb 클라리넷 겸함, 3rd는 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튜바, 팀파니, 심벌즈, 트라이앵글, 템플블록, 우드블록, 스네어드럼, 실로폰, 비브라폰, 탐탐, 테너드럼, 베이스드럼, 슬레이벨, 글로켄슈필, 캐스터네츠, 윈드차임, 하프, 피아노, 현 5부	
연주 시간	약 12분	

조앤 타워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모음곡’이 이번 정기연주회를 힘차게 열어준다. 이 곡은 오케스트라 전체가 단순한 반주자가 아니라 각 악기군이 독주자처럼 활약하며, 현대 음악의 거대한 흐름과 혁신적인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구현한다. 수많은 작곡가들이 버르토크의 협주곡에서 영감을 얻어 오케스트라의 무한한 음색과 기교를 탐색해 왔다. 조앤 타워는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확장해, 미국 음악계의 중요한 목소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연주될 모음곡은 지휘자 피터 운지안이 타워와 협의 끝에 직접 정리한 버전으로, 원곡의 30분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응축해 작품의 핵심 에너지와 서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재구성되었다.

타워는 1960~70년대 무조성과 실험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조성 언어를 구축했고, 존 애덤스, 존 코릴리아노와 함께 미국 현대 음악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작품이 가진 강렬한 리듬감, 풍부한 화성, 그리고 유려한 양상들은 개별 악기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동시에, 오케스트라 전체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호흡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이 모음곡은 2025년 1월, 뉴욕 카네기홀에서 예일 필하모니아와 피터 운지안의 지휘로 세계 초연되었으며, 이후 시카고,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연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KBS교향악단을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에서 초연된다. 이미 해외 무대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만큼, 한국 청중에게도 현대 음악의 생동감과 매혹적인 오케스트라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다. 오케스트라가 단순히 악기들의 집합이라는 생각을 넘어, 그 안의 각 악기가 독보적인 매력과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음을 빛나게 입증해보일 이번 연주회는, 감각적이면서도 깊은 음악적 성찰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모음곡의 압축적 구조는 음악적 서사를 명료하게 전달하면서도, 원작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장대한 음향적 경관(landscape)을 잃지 않는다.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리듬과 선율의 파노라마, 섬세하면서도 대담한 악기배치가 교차하는 순간마다 청중은 현대 오케스트라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경험할 것이다.

차이콥스키 P. I. Tchaikovsky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작곡연도	1878년
초연	1881년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
편성	독주 바이올린,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팀파니
연주 시간	약 33분

이 작품은 스트라빈스키의 혁명적인 ‘봄의 제전’이나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처럼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정신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당시 사람들이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해 가졌던 강한 기대와 충돌하며 전례 없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딛고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며 그 위대한 가치를 증명해낸 작품이다.

차이콥스키는 1878년 봄, 비운의 결혼으로 인한 깊은 정신적 고통과 외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스위스 클렌스의 제네바 호숫가로 피신한다. 그는 이곳에서 동생 모데스트와 22세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요시프 코텍의 도움을 받아, 바이올린 기법에 대한 조언을 얻으며 이 협주곡을 작곡한다. 놀랍게도 불과 3주 만에 전 악장의 스케치를 완성하고, 1주일 만에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마무리하는 경이로운 속도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원래 두 번째 악장으로 구상되었던 ‘명상’은 초기 연주회에서 거부되었고, 대신 하루 만에 작곡된 현재의 ‘칸초네타’로 대체된다.

1881년 한스 리히터의 지휘로 빈에서의 초연 직후 빈의 저명한 음악 비평가 한슬릭은 이 협주곡에 대해 극도로 가혹한 비평을 쏟아냈다. 그는 “귀에 역겹도록 악취를 풍긴다”는 악명 높은 비평을 남겼으며, "바이올린이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잡아당겨지고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진다"는 식의 맹비난을 퍼붓는다. 한슬릭의 이러한 비평은 독일 전통 밖의 교향악적 음악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의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차이콥스키의 D장조 협주곡은 정적이고 극적인 요소, 그리고 강건한 민속적인 분위기와 부드러운 감상적인 순간들이 조금의 부조화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뛰어난 기교와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의 조화다. 독주 바이올린 파트의 기술적 난이도는 엄청나지만, 모든 음표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애절함과 진정성을 발산한다.

제1악장 Allegro moderato

제1악장은 바이올린이 두 개의 주제를 유려하게 펼쳐내며 서정적이면서도 고귀한 분위기로 시작한다. 특히, 악장 초반에 바이올린이 제시하는 단순하고 우아한 선율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차이콥스키가 ‘피아노 협주곡 1번’에서도 사용했던 흥미로운 작곡 기법이다. 오케스트라 파트는 독주자의 등장을 준비하며 점차 장엄해지며, 악장 전체는 멜로디적 발명과 지속적인 발전의 경이로움을 보여준다.

제2악장 Canzonetta: Andante

차이콥스키가 ‘작은 노래’라는 의미의 ‘칸초네타’라고 이름 붙인 느린 제2악장은 섬세한 목관의 서주로 시작한다. 이어서 바이올린의 멜랑콜리한 선율이 등장하며, 악장 전체를 감도는 깊은 그리움과 향수의 정서는 러시아를 떠나 있던 작곡가의 향수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이 악장은 끊임 없이 다음 론도 피날레로 연결된다.

제3악장 Allegro vivacissimo

마지막 제3악장 론도 피날레는 자유분방한 리듬과 러시아 민속 무곡 형태로 활기에 차있다. 농부들의 백파이프와 춤을 연상시키는 듯한 생생한 색채와 리듬은 청중을 매혹한다. 이 악장은 독주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대담한 기교’를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며, 비록 화려한 기교가 요구되지만, 그 모든 것은 멜로디의 전개를 색칠하고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가볍게 날아올라 환희 넘쳐 폭발하는’ 에너지가 오늘 연주회의 주제인 ‘러시아 센티멘털리즘의 이정표’의 한 방향은 아니었을까.

라흐마니노프
S. Rachmaninoff

교향곡 제3번 a단조, 작품 44
Symphony No.3 in a minor, Op.44

작곡연도 1935년~1936년

초연 1936년 11월 6일, 미국 필라델피아

편성 플루트 2, 피콜로, 오보에 2, 잉글리시 혼,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2, 알토 트럼펫,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튜바, 팀파니, 베이스드럼, 심벌즈, 스네어드럼, 트라이앵글, 탐탐, 실로폰, 하프, 첼레스타, 현 5부

연주 시간 약 39분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3번>은 후기 낭만주의 러시아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그의 창조적 역량과 서정미가 응축된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오랜 시간 동안 <교향곡 제2번>의 대중적 성공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외면당했던 이 곡은, 깊이 있게 음악을 탐구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한다. 특히 <교향곡 제1번>의 초연 실패와 이로 인한 우울증, 러시아 혁명을 거쳐 스위스 루체른의 빌라 ‘세나르’에 정착해 완성한 이 작품은 라흐마니노프 인생의 고난과 재기의 상징이기도 하다.

1935년 작곡을 시작해 이듬해인 1936년 완성,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의 지휘로 세계 초연된 이 교향곡은 작곡가가 세심하게 개정해가며 애착을 보인 작품이다.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간결한 구조와 독특한 구성이 특징이다. 특히 전 악장을 관통하는 ‘핵심 동기(motto theme)’의 순환적 사용은 베토벤 5번 교향곡의 기법을 연상시키며, 곡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1악장 Lento ; Allegro moderato

제1악장은 첼로, 호른, 클라리넷의 신비로운 도입으로 시작해 점차 오케스트라 전반의 극적인 폭발로 전환된다. 러시아적 애조와 따뜻한 두 번째 주제, 그리고 세련된 셋잇단음표 리듬이 교차하면서, 핵심 동기의 회귀와 더불어 유려하게 마무리된다.

제2악장 Adagio ma non troppo

제2악장은 느린 악장과 스케르초가 결합된 독창적인 구조로, 하프의 반주 위 호른의 서정이 돋보이며, 크로매틱 바이올린 솔로와 플루트의 선율, 활기찬 스케르초가 교차된다. 이전의 음악적 재료들이 야상곡처럼 재해석되어 마무리되는 부분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을 연상시킨다.

제3악장 Allegro

제3악장은 러시아 춤곡의 역동성과 대위법, 그리고 푸가가 담긴 웅장한 구조로, ‘진노의 날(Dies Irae)’ 선율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운명론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라흐마니노프가 평생 집착했던 ‘진노의 날’ 선율은 그의 작품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며, 이 곡에서는 운명에 대한 고뇌와 장엄함을 증폭시킨다.

초연 당시 이 교향곡은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이라는 혹평을 받았으나, 작곡가는 “50년 후에는 센세이셔널한 성공을 거둘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겼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한 선율의 나열을 넘어서 반복되는 주제와 건축적으로 설계된 구조 속에 깊은 서정, 풍부한 색채, 극적인 전개가 작품 속에 밀도 있게 조화되어 있다. 몇 해 전 차이콥스키의 1번 교향곡 연주 후 국내 악단 레퍼토리에 새바람을 일으킨 KBS교향악단의 저력이 이번 라흐마니노프 3번 교향곡 무대에서도 발현될지 모를 일이다.

이 작품은 낡은 비평적 잣대를 넘어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라흐마니노프가 간직하려했던 러시아인 센티멘털리즘의 그 진정한 음악적 가치를 품고 있다. 라흐마니노프가 이끄는 음악적 논리는 간결함과 세련미 속에 ‘현대성’을 품었으며, 운명예의 몰입과 인간적 감정을 건축적 완성도로 표현해냈다. 그 결과, 교향곡 3번은 오늘날 영원히 기억될 러시아 낭만주의의 정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망명 후에도, 작품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고국을 향한 향수이자 이정표였으리라.

글 | 김은중(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K B S S O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III

N A T A L I E

KBS교향악단 X 나탈리 드세이

2025. 11. 13. THU 20:00

롯데콘서트홀



지중배(지휘), 나탈리 드세이(소프라노), 필립 카사르(피아노)

D E S S A Y

주최 / 주관 KBS교향악단 문의 02-6099-7400 티켓 @12만원 @10만원 @7만원 @3만원 @1만원

예매 NOL ticket 1544-1555 롯데콘서트홀 1544-7744

19TH INTERNATIONAL
FRYDERYK CHOPIN PIANO
COMPETITION WARSAW 2025

KBS S.O. 820TH

지휘
레너드 슬래트킨

LEONARD SLATKIN
CONDUCTOR



2025. 11. 21. FRI 20:00

롯데콘서트홀

주최 / 주관 KBS 교향악단 R 120,000 S 100,000 A 70,000 B 30,000 C 10,000 예매 NOL ticket 1544-1555 롯데콘서트홀 1544-7744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Republic of Poland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영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쿠크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19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이승환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이유진 김시연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심수연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David Coucheron (애들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플루트	유지홍 ^{수석}
클라리넷	이범진 ^{수석}
호른	김홍박 ^{수석}

한국예술종합학교인턴십3기

제1바이올린	권예진 김가연
제2바이올린	박선경 임정민
비올라	송경민 이태형
첼로	신소담
바순	심충현
호른	선수경
트럼펫	박찬영
트롬본	임상원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인턴 전의범 황세빈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윌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항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산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운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한국산업은행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종윤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김희진 포크가수, DJ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영은 KBS 앵커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종효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4년 당신을 지지해온
섀리 포스터피딕
Life ON Sealy

